

8 칼빈의 안식일 신학

양낙홍 교수 / 고신대학원, 교회사

1. 들어가는 말

요즘 한국교회는 과거에 비해 일반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해 별로 언급이 없다.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된 후로 주말의 레저를 위해 예배 결석을 감수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부 교회들은 주일 외의 다른 요일, 이를테면 금요일 저녁 같은 시간에 공중 예배로 모이기도 한다. 이처럼 자유로워진 주일 성수의 관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때로 어떤 이들은 존 칼빈도 주일에 대해 청교도적 개념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일요일 이외의 다른 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래에 하루의 리듬마저도 절대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을 정도로 자유로운 안식일 신학을 가졌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본고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추구함으로써 현대 한국교회가 주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성화의 교리로서의 제4계명

칼빈은 「기독교 강요」(1559) 제2권 8장에서 도덕법, 즉 십계명을 해설하는데 그 장 28~34항에서 그는 제4계명을 강해하면서 안식일 신학을 전개한다. 그는 자신의 안식일 신학의 대주제를 첫 문장부터 천명한다.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자신의 성향들과 일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목상하고 그 목상을 그분에 의해 제시된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다.”¹⁾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 주일 성수의 본질은 자아를 죽이는 것(mortification)과 하나님 일의 목상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안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육신적 욕망들을 버려야 한다.”²⁾

칼빈에게 있어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세사적 욕망들과 죄악된 행위들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안식일 신학은 일차적으로 성화론이다. 칼빈은 “성화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죽이는 데 있다.”고 말한다.³⁾ 그에게 있어 ‘성화의 요약’은 육체를 죽이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고 지상적 본성을 버림으로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것이었다.⁴⁾ 실제로 칼빈은 안식일을 ‘성화의 상징’이라 묘사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성화시키는 자’(sanctifier)가 되실 것(겔 20 : 12)이라는 ‘약속의 표지’였다.⁵⁾

1. *Institutes*, II, viii, 28.

2. *Institutes*, II, viii, 29.

3. *Institutes*, II, viii, 29.

4.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2(trans. C. W. Bingham; Grand Rapids: Eerdmans, 1950[1563]): 434.

5. Gaffin, 29.

3. 제4계명의 모형적 요소들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제4계명에는 모형적(typical) 요소들이 있다. 그는 안식일 계명을 ‘예표’(figure)라고 부른 초대 교부들에게 동의했다.⁶⁾

그분 자신이 진리이며 그분의 임재로 모든 모형들이 사라진다.

그가 몸체이며 그의 출현으로 그림자는 뒤로 제쳐진다. 그는 감히 말하건데, 안식일의 참된 성취이다.⁷⁾

칼빈에게 있어 ‘외적 안식’은 의식 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의식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했다.⁸⁾ 창세기 2 : 3 주석에서도 칼빈은 제4계명에 의식법적(ceremonial) 성격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 점에서 그것은 십계명의 다른 아홉 계명들과 구별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율법에서 안식일에 관한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새로운 요소는 유대인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안식을 예표하는 율법적 의식으로서 그것의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다.”⁹⁾

갈라디아서 4 : 9~10은 칼빈에게 있어 제4계명의 모형적 요소들이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본문들 중 하나이다. 그 구절에 근거하여 칼빈은 어떤 날들도 ‘그 자체로서 거룩한’ 것은 아니며 날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일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반

6. *Institutes*, II, viii, 28. 초대교회 이야기의 일반적 언어는 보다 깊고 영적인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풍유적으로(비유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칼빈은 성경에 대한 비유적 접근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본문을 그대로 해석했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초대 교부들의 전통을 계속 이어 갔다.

7. Calvin, *Institutes*, 397.

8.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2 : 435.

9. Calvin, *Commentary on the Genesis* 2 : 3.

대로 생각하는 것은 그가 보기에 '양심에 울무를 놓는 것'이었다.

골로새서 2 : 16~17도 제4계명의 외적 모형적 요소가 폐기되었다는 칼빈의 주장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근거들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옛날에 의식들(ceremonies)이 예표했던 것들의 실체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눈앞에 제시되었다."고 해석했다.

먼저 칼빈은 제4계명에 나타난 문자적 안식이 의식법적 요소에 속한다고 생각했다.¹⁰⁾ 즉, 육체적 안식은 제4계명의 실재와는 무관한 요소였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주일 노동을 금지했던 것은 '원리' 때문이 아니라 실제적 필요 때문이었다. 즉, 일요일 노동이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학습과 묵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¹¹⁾ 칼빈이 볼 때 노동이 주일을 더럽힌다는 생각은 일종의 미신적 '신비'였다. 그는 우리가 주일에 노동을 중지하는 것은 정부의 명령 때문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마치 특정한 날에 일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처럼 날들을 지키지는 않는다. 우리가 존중을 표하는 것은 정부와 질서에 대해서이지 날들에 대해서가 아니다."¹²⁾

4. 제4계명의 첫 번째 실체 : 영적 안식

제4계명에는 의식법적 요소들이 있다는 교부들의 견해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들이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전부 파악하지는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단지 진실의 절반만 건드렸다."는 것이었다. 칼빈의 관점에 의하면 십계명은 '영원히 남아 있을 규범'이었다. 그러므로 아무도 제4계명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었다. 그 '표상들'(figures)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예표하던 진리가 살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¹³⁾ 우리는 제4계명 안에 있는 '고대의 표상들'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주신 영구적인 지침을 구분해야 했다.¹⁴⁾ 그리스도가 오신 후 우리는 더 이상 '날'을 지키는 옛날의 '굴레'에 매여 있지 않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계명은 그 '실체'에 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관련성을 가진 세 차원이 있었다. 칼빈에 의하면 안식일은 '영적이고 훨씬 더 높은 신비의 모형'이었다. 그러므로 제4계명에는 '다른 목적들'이 있다는 것이었다.¹⁶⁾

교부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칼빈 자신은 간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4계명의 실체들 중 첫째는 '영적 안식'이었다. 일곱째 날의 휴식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 안식'을 제공하고자 하셨는데,¹⁷⁾ 그 영적 안식이야말로 안식일이라는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던 실체였다. 제4계명에 대한 칼빈의 이해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영적 안식'이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일들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었다. 안식일의 내적 실체인 '영적 안식'은 다른 말로 "우리 자신의 모든 도모를 중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역하시게 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쉬는 것"¹⁸⁾이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참으로 바람직하고 복된 죽음'인데

10. John Primus, "Calvin and the Puritan Sabbath : A Comparative Study," in *Exploring the Heritage of John Calvin : Essays in Honor of John Bratt*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6), ed., David E. Holwerda, 71.

11. *Institutes*, II, viii, 33.

12. Calvin, *Commentary on Colossians* 2 : 16-17.

13.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ited and translated by B. Farley, Grand Rapids : Baker, 1980(French Original, CO, 26), 102-103.

14. Calvin, *Commentary on Genesis*, 2 : 3, 106-107.

15.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34(London, 1583, Banner of Truth Trust Facsimile Reprint, 1987), trans. Arthur Golding, 67.

16.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2 : 437.

17. Calvin, *Institutes*, II, viii, 28.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자신이 죽고 그 대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이었다.¹⁸⁾

칼빈은 '우리 자신의 일들'에 대해 철저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일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한 참된 안식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는 왜 인간의 행위에 대해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종교개혁의 근본 교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는가? 제4계명에 대한 그의 해석은 단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모토에 대한 반복적 강조에 불과했는가? 여기에서도 그는 로마 교회의 '공로' 사상을 반박하고자 했는가? 그랬을 수도 있다. 갈라디아서 4:9~10의 안식일에 대한 주석에서 그는 '성일들'을 '공로라는 마귀적 인식'과 연결시키는 로마 교회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그러므로 '영적 안식'이 우리 자신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때 '우리 자신의 일'이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을 지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칼빈의 영적 안식이란 인간이 자기의 율법적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칭의받으려는 태도를 의미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안식일에 대한 그의 신명기 설교를 보면 더 증가된다. "만일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그(하나님)는 그들에게 '일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쉬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고 말씀했다."²⁰⁾ 이렇게 본다면 제4계명은 칭의론과 관련된 것이다.

한편, 창세기 주석에서 칼빈은 영적 안식을 "육신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거나 자신의 성향에 몰두하거나

18. *Institutes*, II, viii, 29.

19.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2:435.

20.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ited and translated by B. Farley, Grand Rapids: Baker, 1980(French Original, CO, 26), 118.

하지 않는" 것이라 정의한다.²¹⁾ 칼빈에게 있어 영적 안식의 또 하나의 핵심은 바울의 표현을 빌면,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칼빈은 제4계명의 강해에서 자기 신학의 대주제인 '자기 부인'(self-denial)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강조를 반복하는 셈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주된 부분을 형성하는 그것, 즉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성향들이나 이성이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이다."²²⁾

칼빈은 신명기 설교에서 그 점을 재확인한다. "영적 안식을 지키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에 대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모든 것과 우리 본성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행하기를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빈의 견해를 따르면 육체적 무위(inactivity)를 포함한 안식일의 가장 엄격한 성수조차도 이 영적 안식의 요소가 없으면 허사다. "만일 우리의 정욕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들과 욕망들을 포기하기까지 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 쉬기를 원한다고 엄숙히 선언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모두 허사가 될 것이다."²³⁾ 자기 자신의 일을 중지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이성, 도모들, 그리고 육신의 모든 느낌들과 감정들을 벗어 버려야 한다." 다른 말로 그들은 "마치 자신과 세상에 대해 죽은 것처럼"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²⁴⁾ 누가 자신의 일을 쉬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 인도되거나 자기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했다."²⁵⁾ "주의 안식을 영적으로

21. Calvin, *Commentary on Genesis 2:2-3*.

22.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119-120.

23. *Ibid.*, 104-105.

24.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2:434.

지키는" 길은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러지는 것이라는 말이었다.²⁵⁾

역시 신명기 설교에서 칼빈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실체라고 주장한다. "안식일은 부분적으로 인간들이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식으로 그분에게 자신을 드러지 않는다면 그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비유적 방식이다."²⁷⁾ 단지 일상의 업무를 중지하고 예배로 모아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사악한 정욕을 마음에 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법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질투, 다툼, 야심, 잔인성 혹은 간계'로 가득할 때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셈이라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었다.²⁸⁾ 이 경우 안식일 계명은 성화론의 일부이다.

그리하여 칼빈에게 있어 '영적 안식'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신칭의와 성화였다. 자기 행위에 의해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적 노력을 포기하고 의와 구원을 위해 오직 주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전폭적으로 주의 역사를 의지하는 신앙적 태도 및 자신의 육신적 욕망과 성향을 포기하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성화의 삶, 두 가지가 제4계명의 실체라는 것이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영적 안식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의미에서 제4계명에는 의식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었다.

5. 무위(inactivity)가 아니라 목상을 위한 안식일

칼빈은 주일목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보기에 제4계명의 의

도는 '단지 육체적 무위'를 격려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빈둥거리는 것과 게으름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지 노동을 중지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²⁹⁾ 칼빈은 여유라든지, 일상적 업무로부터의 자유를 통한 긴장 이완(relaxation)이나 기분 전환(refresh) 같은 것을 게으름이나 태만과 거의 동일시한 듯하다. 그가 이해한 안식일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일을 쉬는 것 이상의 것인데, 그 중 하나는 목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주일은 그의 표현을 따르면 '나태한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목상에 바쳐야 할 시간'이었다.³⁰⁾

칼빈의 견해를 따르면, 하나님이 이제껏 되는 날을 자신의 날로 택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의 '작품들의 아름다움, 탁월성 및 적합성'을 숙고하게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물론 우리는 평일에도 항상 '그의 창조와 세상 통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 지혜, 능력, 그리고 선하심을 묵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번덕스럽고 잊기를 잘하며 주의가 쉽게 분산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루를 구별하셔서 그날에는 우리가 모든 세상 염려와 일에 대한 걱정을 던져 버리고 '거룩한 작업'에 몰두하게 하셨다. 그 거룩한 작업에는 '사적 묵상'과 성전에서의 공예배, 그리고 '가정에서의 개인적 휴식'이 포함되었다.³¹⁾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 쉬셨던 것은 휴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그의 작품들을 명상하는 데 집중하도록 초청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³²⁾ 비유컨대 우리가 전망대에 올라갈 때 비로소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 없이 경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25. Ibid., 436.

26.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201.

27.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97-98.

28.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201.

29. Ibid.

30. Calvin, *Commentaries on Luke 4:16*.

31.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2:437. 주일에 개인적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을 칼빈이 여기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32.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104-105.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혜택들'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³³⁾

6. 공적 예배 : 제4계명의 두 번째 실체

칼빈에게 있어 안식일 계명의 두 번째 실체는 공예배와 묵상을 위한 날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다. 안식일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정기적인 날'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단지 집에서 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할 뿐 아니라 성전에 "모여 율법을 듣고 예배 의식을 거행하거나 최소한 특별히 그날을 그분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데 드림으로 이러한 기억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셨다."³⁴⁾ 예배 의식에는 물론 성찬과 공적 기도가 포함되었다. 이것은 안식일 계명의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에 속하므로 칼빈은 그것을 '옛날의 그림자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것은 리처드 개핀의 표현처럼 "영적 안식의 최고 최적의 표현"이었다.³⁵⁾ 그리하여 '어떤 점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예배와 종교 활동을 위한 날을 가지는 "이 목적을 위해 주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계승했다는 것이다."³⁶⁾ 이것은 칼빈이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칼빈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보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단속적으로 보았다고 보아야 할지 다소 애매

하다. 아마 외적이고 문자적인 차원에서는 단속적이나 내적 영적 의미에서는 연속적으로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어쨌든 예배를 위해 특정한 날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동일한 필요'를 가진다고 그는 생각했다.³⁷⁾ 그가 볼 때, 안식일 제도는 "우리의 매우 자상하신 아버지께서 유대인들의 필요 못지않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다."는 증거였다.³⁸⁾ 결국 자유로운 하루를 가짐으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보다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³⁹⁾

당시 칼빈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주일을 지킨 제네바 교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날들을 지키는' 것은 유대주의의 잔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제네바가 날들을 지키는 것은 사실이나 그 동기가 다르다고 답변했다.⁴⁰⁾ 유대인들은 '영적 신비가 그것에 의해 상징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장 경직적인 꼼꼼한 의식'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제네바는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일을 지켰다.⁴¹⁾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날들의 구별'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의 평화에 기여하는 합법적 선택'이라는 것이었다.⁴²⁾ 그러므로 칼빈이 주일마다 집회를 가진 이유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이고 교회적인 것이었다. '만일 정해진 날들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모일 수 있겠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교회 회집을 위해 한 날을 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서와 단정함'(order and decorum), 그리고 '공동의 조화'(common harmony)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당장 혼란과 파멸에

33.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110.

34. Calvin, Institutes, II, viii, 28;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2:437.

35. Gaffin, 38.

36. Calvin, Commentaries on Luke 4:16. 개핀에 의하면 이 부분은 칼빈이 주일을 안식일의 승계라고 말하는 세 군데 중의 하나이다. 나머지 둘은 고린도전서 16:2와 「기독교 강요」에 있는 언급이다. Gaffin 98.

37.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vol. 2:437.

38. Institutes, II, viii, 32.

39.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vol. 2:437.

40. 1537년 콜리네이우스라는 시민이 제네바가 일요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은 유대적 관습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불평한 적이 있다.

41. Institutes, II, iii, 33.

42. Institutes, II, viii, 33.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⁴³⁾

그러자 “날들의 구분을 없애기 위해 매일 모이면 되지 않는가?” 하는 반론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칼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 대답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안식은 영속적인 것이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충분한 열심이 있다면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더욱더 성장해 가야 할 것이다.”⁴⁴⁾ 완전한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공예배를 드림으로써 ‘날들의 구분’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영적 열심도 부족한 데다 각자의 생활이 워낙 복잡하고 바쁘다 보니 공적 집회를 매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이레에 하루를 안식일로 할애하시고 그 날에는 모든 세상일과 근심들을 쉬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저 기록한 일’, 즉 공예배와 사적 묵상,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쉬는 일’에 자유로이 전념할 수 있게 하셨다.⁴⁵⁾ 그러므로 이레에 하루의 예배일 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시고 양보하신 결과였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루만 그분에게 할애하더라도 만족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레에 하루를 요구하신 것은 아주 합당한 처사였다. 왜냐하면 그는 나머지 엿새나 되는 날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세상적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⁴⁶⁾ 그런데 겨우 이레에 하루를

43. *Institutes*, II, viii, 32. Calvin, Commentaries on Galatians 4 : 9-10 ; I Corinthians 16 : 2.

44.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202, 203-204. 제4계명에 대한 칼빈의 신명기 설교는 1555년 6월 20일과 21일 목, 금 양일에 걸쳐 행해졌다. 프라이머스에 의하면 청교도 목사 니콜라스 바운드가 가장 자주 참조한 칼빈의 자료는 바로 이 설교들이다. Primus, 66.

45. Ibid.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칼빈이 이레에 하루라는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문자적 안식을 제4계명의 실체에 포함시키고 있다.

46.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207.

하나님께 할애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 이 질서’를 과하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칼빈의 논리였다.⁴⁷⁾ 그리하여 칼빈은 기독교의 존재와 흥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예배를 위해 모이는 열심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제4계명 강해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맺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 교리를 특별히 고수해야 한다. 즉 우리 중에서 기독교가 사멸하거나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성스러운 집회들을 부지런히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진흥할 수 있는 외적 보조 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⁴⁸⁾

7. ‘이레에 하루’의 원칙에 대한 칼빈의 입장

‘칠 일에 하루’의 리듬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칼빈이 이레에 하루를 공적 예배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 질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또 그는 이레에 하루를 예배와 종교 활동에 바쳐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주일이 안식일을 계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칼빈의 창세기 2 : 2~3 주석에는 이레에 하루의 원리가 단지 유대인들을 위한 일시적 제도가 아니라 창조의 규례로 언급된 부분들이 있다.⁴⁹⁾ 예를 들면, “매 칠 일째가 매일의 묵상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선택되었다. 하나님은 매 이레째를 안식에 바치심으로 그 자신의 모범이 영원한 규칙이 되게 하셨다. 마치 나태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없이 이레마다 공휴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안식일)이 태초부터 인간들에게 명해졌으므로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되는

47. *Institutes*, II, viii, 32. 그러나 뒤에 가서 칼빈은 이레에 하루라는 리듬이 신적 명령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자가당착적 면을 보인다.

48. *Institutes*, II, viii, 34.

49. Gaffin, 146, 81.

것이 옳다.”⁵⁰⁾ 등이 그것들이다. 또 출애굽기 주석에서도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새 일하고 이레째 쉬는 본을 보여 주시고 하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옛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이레째 쉬신 것은 그의 작품의 완전한 탁월성을 보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우리의 모방을 위한 모델로 제시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백성을 지복(felicity)의 참된 목표로 부르신다는 것을 표명하신다.⁵¹⁾

그러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요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가 하는 것은 안식일 계명의 실체를 준수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명기 설교에서도 그는 예배드리는 요일 문제와 시간의 문제는 인간의 판단에 일임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느 경우든 일주일 중 어느 날을 택하는 이 질서는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⁵²⁾ 예배 요일의 문제는 아디아포라에 속하지만 일단 정한 이상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는 예배드리는 날을 꼭 일주일마다 잡을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 나는 ‘칠’이라는 숫자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교회들을 그 숫자에 얽어매지 않는다. 그리고 미신화되지만 않는다면 어떤 교회들이 집회를 위해 다른 엄숙한 날들을 지키더라도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⁵³⁾

50. Calvin, *Commentaries on Genesis* 2 : 3, 106.

51.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2 : 436.

52.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recited in Gaffin, 112.

53. *Institutes*, II, viii, 34.

로마 교회는 제4계명 안에 있는 유일한 의식법적 요소가 ‘일곱 번째 날의 지정’이라 이해했다고 칼빈은 지적한다. 이 점에서는 청교도들의 4계명 이해도 로마 교회의 그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 교회와 청교도들 공히 ‘이레에 하루를 고정한 것’은 도덕법적 요소라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이 볼 때는 ‘이레에 하루’의 원리 역사의 식법의 부분에 속한 것이었다. 제7일을 제1일로 바꾼 것은 안식일에 대한 유대교적 견해에 반발해서 ‘단지 날을 바꾼 것’에 불과했다. 그러는 중에 로마 교회는 은연중에 유대인들과 같은 인식, 즉 일요일이 모종의 ‘신비’ 혹은 ‘거룩함’(sanctity)을 지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칼빈이 볼 때 그것은 ‘미신’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었다.⁵⁴⁾ 그에겐 어떤 날도 그 자체로서 성스럽거나 특별한 날은 없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 ‘조잡하고 육신적인 안식일적 미신’에 있어 유대인들보다 ‘세배’는 더하다고 칼빈은 비난했다.⁵⁵⁾ 신명기 설교에서도 칼빈은 제4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서는 제7일도 아니고 심지어 이레에 하루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⁵⁶⁾

칼빈은 굳이 이레에 하루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며칠에 한 번을 모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만일 그들이 규율과 선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중하기만 한다면” 그러하다는 것이었다.⁵⁷⁾ 공예배로 모이는 요일 문제와 관련하여 칼빈이 즐기치게 관심을 가졌던 유일한 사항은 ‘예절, 질서, 그리고 교회의 평화’였다.⁵⁸⁾

54.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란 존 맥닐의 각주에 따르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55. *Institutes*, II, viii, 34.

56.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111.

57. *Institutes*, II, viii, 34.

58. *Institutes*, II, viii, 33.

8. 제7일에서 제1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7일 대신 제1일이 '옛 사람들'에 의해 지정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에 의하면,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환은 계서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 다른 곳에서도 칼빈은 '초대 교부들'이 안식일의 모형적 성격은 폐지되었음을 감지했다고 쓰고 있다.⁵⁹⁾ 물론 개편이 지적하듯 칼빈은 구체적으로 누가 그리고 언제쯤 그러한 변천을 주장하고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신명기 설교에서도 칼빈은 인간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모든 예속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려 때문에 공예배를 위한 날을 일요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월요일이건 다른 요일이건 상관이 없었다.⁶⁰⁾

칼빈은 안식일로부터 주일로의 전환이 이중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미신을 제거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로마 가톨릭의 율법주의적 주일 성수에 대한 반발로 칼빈은 공예배 날을 정하는 데 있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주일마다의 회집에 대해 이의를 가진 재세례파의 어떤 '소란스러운 영혼들'에 대항해서는 주일 제도를 변호했다.

칼빈의 견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엄격히 말해서 칼빈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일요일에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로마 교회처럼 특정한 날에 의미를 부여하는 소위 '미신화'를 그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날들의 미신적 성수는 절대 피해

야 한다."⁶¹⁾ 이 말은 날들을 자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 사고는 미신이라는 의미였다.⁶²⁾ 그리하여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요일들에 정기적으로 질서 있게 모일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한 주에 어느 날을 지키는 동일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횡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다."⁶³⁾

그러나 칼빈은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일요일에 모이기로 결정했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하여 예배일을 바꾸었음을 칼빈이 인정했을 때, 그것은 요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날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써 생명의 주요, 만유의 주이심을 선언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날 그가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했다는 측면에 관한 것이었다. 신명기 설교에 그러한 강조가 다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보여 준다는 의도 때문에 그날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을 통해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것의 의무를 폐기하셨다.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의) 날이 바뀐 이유이다.⁶⁴⁾

어쨌든 칼빈은 일요일 공예배를 위한 회집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반대가 없었다. 즉, 칼빈이 예배일을 다른 날로 바꾸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는 어떤 학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는 일요일 예배에 대해 아무 이의가 없었다. 단지 원리적으로 꼭 그날이어야만 한

59. *Institutes*, II, viii, 28.

60.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111, recited in Gaffin, 112.

61. *Institutes*, II, viii, 31.

62. *Primus*, 62.

63.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205.

64.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205.

다거나 일요일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칼빈이 현대의 성경학자들만큼 요한계시록 1:10의 '주의 날'이라는 표현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칼빈은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와 묵상을 위해 성별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⁶⁵⁾ 그러므로 칼빈이 팔 일이나 열흘에 하루를 공적, 사적 예배일로 할애해도 좋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단지 그는 꼭 '이레에 하루'의 리듬과 일요일이라는 요일 문제가 신적 기원이나 계시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⁶⁶⁾

9. 노동자들을 위한 고려

칼빈은 제4계명의 세 번째 실재를 육체 노동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고려라고 해석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수하에 있는 자들을 비인간적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⁶⁷⁾ 사회경제적 위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한 몸으로 엮여져' 있고⁶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

65. Primus, 65.

66. 역사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칼빈의 이해에 있어 그의 「기독교 강요」와 창세기 주석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의 설명을 시도한 여러 신학자들이 있었다. 17세기에 이미 보에티우스는 「기독교 강요」에 분명히 나타난 칼빈의 입장은 예배 요일의 문제는 '아디아포라'라는 것인 반면, 그의 창세기 주석의 입장은 하나님이 이레에 한 번을 영원한 예배일로 지정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레에 하루의 리듬이 창조 규례라는 것이다. 하지만 칼빈은 양자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그의 초기 견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1554년에 처음 출판된 창세기 주석에서 변화된 그의 후기 입장—진정한 그의 견해—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프람스마는 또 다르게 해석한다.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견해는 로마 교회의 율법주의적 관점에 대항하여 기록된 것인 반면, 창세기 주석의 그것은 성경이 어떤 종류의 안식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일요일에도 다른 요일들처럼 일을 계속한 재세레파들에 대항하여 쓴 것이라 보았다. Gaffin, 24-25.

67. 400.

았으므로 다른 인간을 압제하거나 착취하는 것은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침해였다.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간들 안에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이를 압제할 때 나는 단지 나(자신)의 육체를 멸시할 뿐 아니라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⁶⁹⁾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종들과 남의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노고로부터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을 제공하고자 하셨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말하자면 그날은 노동자들이 긴장을 풀 수 있는 하루(a day of relaxation for the servants)라는 것이었다.⁷⁰⁾ 그것은 '자비의 원칙에 관계'된 것이니만큼 안식일 계명은 영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⁷¹⁾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제4계명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포함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봉사'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제4계명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 지고 있는 자비의 의무에 관한 명령이 아니었다. 종들에게 주어진 안식은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단지 '부속물'(accessory)이거나 '부수적'(accidental)인 것, 즉 '부대적 이익'(extrinsic advantage)에 불과했다.⁷²⁾ 안식일 계명은 일차적으로 사회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제4계명에는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객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다.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의 표지인 안식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답은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68.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208.

69.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126.

70. *Institutes*, II, viii, 28.

71.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208.

72.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121-22;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vol. 2: 437.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안식일에 반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⁷³⁾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모범을 제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미혹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강제적 안식을 취해야 했다. 소나 나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진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눈을 들면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쉬고 있는 짐승까지도—이 안식일의 준수를 상기시키는 교훈을 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영적 봉사를 요구하실 리는 없다.”⁷⁴⁾ 그러므로 그 구절도 짐승들 자체를 위한 의미는 전혀 없었다. 마찬가지로 나그네들조차 안식일에 일하지 말게 하라는 명령은 나그네 자체를 위한 것, 즉 그들의 육체적 안식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칼빈이 볼 때 육체적 안식이라는 의미는 제4계명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았으므로, 나그네나 짐승이 좀 숨을 돌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해석을 상상할 수 없었다. 안식일의 ‘쉬’는 칼빈에게 있어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오직 예배와 목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10. 주일 성수의 구체적 방법

안식일에 대한 칼빈의 진보적인 이론들을 볼 때 우리는 주일 성수 방법에 대해서도 칼빈이 아주 자유롭고 느슨한 가르침을 주었을 것이라 예상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라는 점으로 인해 독자들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그의 주일 성수 방법론은 사실상 안식일주의자들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리하여 그의 입장은 ‘실제적 안식일주의’(Practical Sabbatarianism)라 불린다. 말하자면 안식일 신학의 이론에

73. Ibid.

74. Ibid.

있어서 그는 아주 진보적이거나 적용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먼저 칼빈은 올바른 주일 성수의 방법이 주일 하루 종일을 종교적 활동에 바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날을 오직 그의 말씀을 듣고 공기도를 올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성례를 거행하는 데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라!”⁷⁵⁾ 공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했다.⁷⁶⁾ “주일이 제정된 것은 단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뿐 아니라 남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바치게 하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한다.”⁷⁷⁾ 그리하여 칼빈은 주일에 문자적이고 육체적으로 일상 업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비롯한 종교적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자비롭게도 옛새를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시간의 불과 칠분의 일, 즉 이레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이라고 칼빈은 지적한다. 또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라는 말씀도 옛새 동안 계속 일만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 외에도 우리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그는 해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레에 하루 온 정성과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⁷⁸⁾

11. 안식일에 운동과 레크리에이션?

공적이고 사적인 예배를 드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칼빈은

75.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130.

76.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204.

77.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110, 113.

78.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vol. 2: 438.

주일에 일상적 업무를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아가서 그는 주일에 레크리에이션이나 스포츠를 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만일 우리가 주일을 기분 내고 게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요 그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⁷⁹⁾ 이쯤 되면 우리는 칼빈의 안식일관이 실제적으로는 청교도들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

현대의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제안이었으나 칼빈은 주일에 상점들이 문을 닫아야 하며 여행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 그것이 우리가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만 만일 우리가 그것을 범하면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⁸⁰⁾

12. 주 5일 근무제와 칼빈

만일 우리가 칼빈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옛세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므로 주 5일 근무제는 제4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묻는다면 그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는 그 말씀이 옛세 꼬박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일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의미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이레에 하루를 예배를 위해 성별해 두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⁸¹⁾

79.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204.

80. Ibid.

81.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206.

13. 맺음말

요컨대 칼빈은 제4계명의 거의 모든 요소들을 의식법적, 모형적 요소로 간주한다. ‘제7일’이라는 요소, ‘이레에 하루’의 리듬, 그리고 문자적 휴식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모두 그리스도 오신 이후 폐기된 예표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간혹 안식일과 창조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곳이 있으나 칼빈의 주조는 제4계명을 창조의 규례로 보지 않는 것이다.⁸²⁾ 이런 점에서 청교도들의 안식일관과 이론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칼빈에게 있어 제4계명의 ‘실체’, 즉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지니는 의미는 영적 안식의 차원이다. 영적 안식은 신자들이 자기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죄악된 성향과 욕망과 일들을 중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는 것이다. 즉, 자기 부인,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구원과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등이 칼빈이 본 제4계명의 본질이었다. 영적 안식은 공적 예배와 사적 묵상으로 표현되었으며, 그 부수적인 요소로 제4계명에는 육체 노동자들을 위한 보너스, 즉 문자적 휴식의 요소가 포함되었다. 칼빈 자신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4계명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한다.

첫째, 우리는 평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묵상함으로써 주님이 그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한다. 둘째, 우리 각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경건히 묵상해야 한다. 또 우리는 말씀의 경청, 성례의 거행, 그리고 공적 기도들을 위해 교회가 정해 놓은 합법적 질서를 함께

82. John Primus, “Calvin and the Puritan Sabbath,” in *Exploring the Heritage of John Calvin*, 72.

지켜야 한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지배 하에 있는 자들을 비인간적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⁸³⁾

칼빈의 안식일 신학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칼빈은 제4계명의 실체를 영적 안식, 즉 ‘범죄로부터의 안식’ 혹은 ‘우리 자신의 일’이나 ‘우리 자신의 죄악된 욕망과 성향’의 중지라는 의미의 성화론으로 본다. 그러나 성화 혹은 자기 부인이란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명제이다. 한편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의무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이다. 그런데 열 가지 명령들 중 하나에 불과한 제4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말씀 전체를 대변하거나 요약할 수 있는가?⁸⁴⁾

둘째, 칼빈은 제4계명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성화 교리와 연결시키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한 해석인가? 안식일 계명에 대한 영적 해석 혹은 비유적 해석이 제4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교회의 의식을 혹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어떤 이들은 칼빈이 종교개혁의 중심적 교리인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모토를 제4계명의 해석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바람에 거기서 ‘영적 안식’—자기 일을 그치고 하나님만 일하시게 하는—만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즉, 이신칭의와 은혜의 교리를 과잉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안식일 성수에 장애가 되는 견해를 제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⁸⁵⁾

셋째, 칼빈은 문자적 안식의 요소를 4계명의 실체에서 거의 배제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안식일 계명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는 가르침인가? 안식일에서 육체적, 정신적 안식의 요소를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칼빈의 견해를 따르면, 제4계명이 ‘영적 안식’의 그림자이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는 제4계명의 외적 핵심은 논리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주일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일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가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칼빈은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 노동을 하거나 종교와 무관한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 어떤 허용의 여지도 보여 주지 않는다. 이것은 이론과 실천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견해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론상 칼빈이 어떠한 안식일 신학을 제시했던 간에 주일 성수에 대한 그의 실천적 가르침은 청교도들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 점에서 그가 ‘실천적 안식일주의자’라는 지적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일의 오락이나 운동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종일을 오직 종교적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묵상, 찬양, 공적 예배와 기도예 주일 하루를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칼빈의 안식일 신학을 근거로 너무 쉽게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경솔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83. Calvin, *Institutes*, II, viii, 34.

84. 이 의미는 이미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 제기되었고, 현대에는 개편이 다시 제기하는 질문이다.

85. 캔트리, 141.